

□ 설탕·커피값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 우려 증가

1. FinancialTimes(2010.12.20) 주요 내용

- 설탕과 커피가격이 지난 월요일 최고가를 기록함.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확량이 추정치보다 낮아지면서, 공급 문제로 인해 애그플레이션(food inflation)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.
 - 이러한 설탕과 커피가격의 급등은 옥수수, 밀, 콩 등 다른 농산물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뉴욕 국제선물거래소(ICE) 3월물 원당가격이 파운드 당 전일 대비 33.5센트(3.1%)를 기록하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.
 - 영국 Sucden의 설탕 브로커인 토마스 쿠자와는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설탕가격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지난 1월 이후 원당 가격은 22퍼센트 상승하였고, 트레이더들은 2011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설탕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확대로, EU는 추가적인 수출 허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, 당분간 유럽 내수시장의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함.
 - 지난주 포르투갈에서 설탕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는데, 최근 30년 내 유럽 국가에서 설탕이 품절된 적이 없었음.
- 인도는 지난주 가까운 시일 내로 시험적으로 설탕 50만 톤을 제한없이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, 인도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 없어 트레이더들은 뉴델 리 일부에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.
 - 토비 코헨 차르니코우 리서치부문 대표는 인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설탕 수출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.
- 한편, 세계 최대 커피생산국인 콜롬비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, 이날 3월물 아라비카 커피 가격은 전일 대비 0.7% 상승하여 13년 6개월

만에 최고 수준인 파운드당 2.2695달러를 기록함.

- 지난 시즌 콜롬비아 원두 생산량은 35년만에 최저 수준인 810만 자루(1자루 60kg)에 그침.
- 커피 재배지역의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해, 지난 10년간의 평균생산량인 천만 자루에 비해 2백만 자루 가량 생산이 감소하였음.

2. 시사점

- 밀·옥수수·콩 등 곡물에서 촉발된 곡물 위기가 설탕·커피 등의 작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. 이에 따라 농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곡물 뿐 아니라 농식품 전반에 걸쳐 가격 및 생산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- 농식품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추이가 2011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함. 한편 국내 제분업계 등도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, 원당 등 원료 수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됨.

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